

九政洞 方形墳 年代 再考

Reconsideration on the Period of
Square Tomb in Gujeong-dong

배 노 찬

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4단계 BK21 참여대학원생

I. 머리말

II. 내부적 속성

1. 매장주체부 구조
2. 안상문 관대
3. 당식 대장식구 교구

III. 외부적 속성

1. 호석 구조
2. 십이지신장상 도상

IV. 통일신라 능원제도에서 구정동 방형분의 의미

1. 피장자 비정의 문제
2. 방형 평면 고분의 조영 배경

V. 맺음말

국문 요약

통일신라 왕릉은 빌굴조사 사례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호석 구조나 삽이지신장상 도상, 능원 형식 등 외부적 속성을 중심으로 연대를 판단한다. 그러나 구정동 방형분은 빌굴조사가 행해졌기 때문에 매장주체부 구조와 출토유물이라는 내부적 속성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고분의 연대에 관해서는 여타 왕릉에 비해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8세기 후엽 인근과 9세기 중엽 또는 그 이후로 보는 두 가지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또 이를 판단하는 방식은 대부분 여타 통일신라 왕릉을 분석하는 것과 같이 외부적 속성에 한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필자는 해당 고분의 내부적 속성과 외부적 속성을 함께 살펴 그 연대를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구정동 방형분의 내부적 속성으로는 매장주체부 구조, 안상문 상석, 당식 대장식구 교구의 세 요소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구정동 방형분의 매장주체부 구조는 8세기 중엽부터 10세기경까지, 안상문 판대는 8세기 중엽부터 9세기 초까지, 당식 대장식구 교구는 7세기 중엽부터 9세기 초반까지로 판단된다.

또 선행연구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졌던 구정동 방형분의 외부적 속성도 재검토해 보았다. 분석 결과 호석 구조와 삽이지신장상 도상 양자에서 모두 8세기 후엽 인근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었다. 따라서 내·외부적 속성 모두를 고려하였을 때 구정동 방형분의 연대는 8세기 후엽 인근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8세기 후엽에 조영되었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구정동 방형분의 피장자와 방형 평면 고분의 조영 배경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피장자의 비정에 앞서 이 고분이 명확한 왕릉으로 볼 수 있는가를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여타 왕릉과 비교하였을 때 왕릉급 고분임은 맞으나 왕릉으로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으며 그 피장자 역시 보다 넓은 범위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문헌기록을 검토해 보았을 때 구정동 방형분은 그 피장자가 왕이라면 경덕왕릉, 왕이 아니라면 원성왕대 태자릉으로 잠정 판단된다. 한편 방형 평면 고분의 조영 배경으로는 불탑을 충실히 모방하고자 한 결과로 추정하였는데 이는 피장자를 경덕왕 또는 원성왕대 태자로 보았을 때 그들의 성격 또는 당시의 국제적 상황과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주제어 :통일신라, 신라왕릉, 구정동 방형분, 경덕왕릉, 태자릉, 방형 평면, 불탑 모방

I . 머리말

경주 구정동 불국로터리 북측 구릉 말단에 위치한 구정동 방형분은 1920년 조선총독부 주관 하 谷井濟一(야쓰이 세이이치)의 발굴조사(有光敎— 1936: 81~83; 尹相惠 2012: 21~24), 1964~65년 한국일보 신라삼산오악조사단의 복원공사(孫龍文 1966; 경주시 ·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이하 전통대) 2013a: 311)가 이루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두 차례의 고고학적 작업을 통해 이 고분은 호석 구조, 十二支神將像 圖像 등의 외부적 속성을 물론 매장주체부 구조, 출토유물의 내부적 속성까지 통일 신라 왕릉급 고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고분의 연대에 관한 諸說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다. 첫째는 8세기 후엽 인근으로 보는 견해로 有光敎一(아리미쓰 교이치 1936: 99~100), 姜友邦(1990b: 374), 張賢熙(1997: 51~53,71), 최민희(1999: 61~62), 陳政煥(2009: 150)의 연구가 있다. 둘째는 9세기 중엽 또는 그 이후로 보는 견해로 姜仁求(2000: 456~460), 이근직(2012: 138~139, 324~325, 406~407), 金龍星(2012: 139~145), 전덕재(2013: 484~485), 임영애(2020: 322~323)의 연구가 있다.

각 연구에서 연대를 판정하는 주 근거 또한 각각 다르다. 크게 ①십이지신장상 도상이나 浮彫 높이의 변천을 근거로 한 것(有光敎一, 姜友邦, 張賢熙, 陳政煥, 임영애), ②능원 형식을 설정하고 각 형식의 변천을 근거로 한 것(姜仁求, 이근직, 金龍星), ③매장주체부와 墳形의 계통을 설명하고 관련 인물을 선정하여 피장자를 비정한 것(최민희), ④문헌에 기록된 각 王 葬地의 현 위치를 비정하고 해당 공간에 있는 고분과 결부시킨 것(전덕재)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각각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여타 통일신라 왕릉을 분석하는 방식과 같이 주로 외부적 속성에 한정하여 구정동 방형분의 연대를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구정동 방형분에는 십이지신장상이 조성된 여타 통일신라 왕릉과는 달리 내부적 속성을 분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또한 연대 판단의 근거로 이용될 수 있다. 양 속성을 함께 살펴본다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연대 차이에 대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구정동 방형분의 내부적 속성인 매장주체부 구조, 출토유물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이와 함께 선행연구에서 이루어졌던 외부적 속성에 대한 분석

을 재검토하는 방식으로 해당 고분의 연대를 추정한 뒤, 이를 바탕으로 구정동 방형분이 통일신라 능원제도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서술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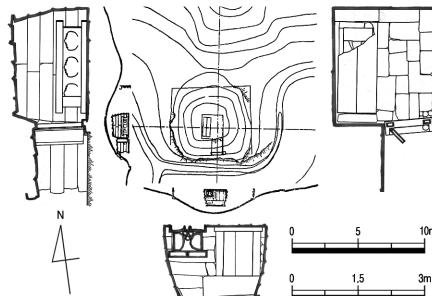
Ⅱ. 내부적 속성

구정동 방형분의 1920년 발굴조사 결과 매장주체부 구조는 6세기 이후 신라 고위층의 주 묘제였던 횡혈식석실로 밝혀졌다. 석실의 내부에서는 “측면에 3개의 格狹間(眼象文)이 조각된 棺臺 일괄 1점, 金銅棺飾金具 2점, 銀製鉸具 2점, 金製杏葉破片 1점, 靑銅小版 2점, 骨片 2점” 등이 출토되었다고 한다(有光敎一 1936: 81~83). 매장주체부 구조와 출토유물 중 편년이 가능한 것에 대한 연대를 살펴보자.

1. 매장주체부 구조

[도면 1]은 구정동 방형분의 1920년 조사 당시 도면이다. 현실은 전-후 2.6m, 좌-우 2.3m의 방형 평면이다. 벽체는 치석한 장대석을 한 단에 2매씩 연결하여 6단을 쌓아 올렸다. 3단까지는 수직에 가까우며 그 위부터는 궁륭상이다. 현실 높이는 1.7m이다.¹⁾ 현실 내부에는 출입구 반대편에 치우쳐 여러 매의 판석을 조립한 관대가 설치되었다. 연도는 오른쪽에 치우쳐 있고 연도와 현실 사이에는 羨門을 시설하였다. 연문시설 또한 모두 가공된 석재를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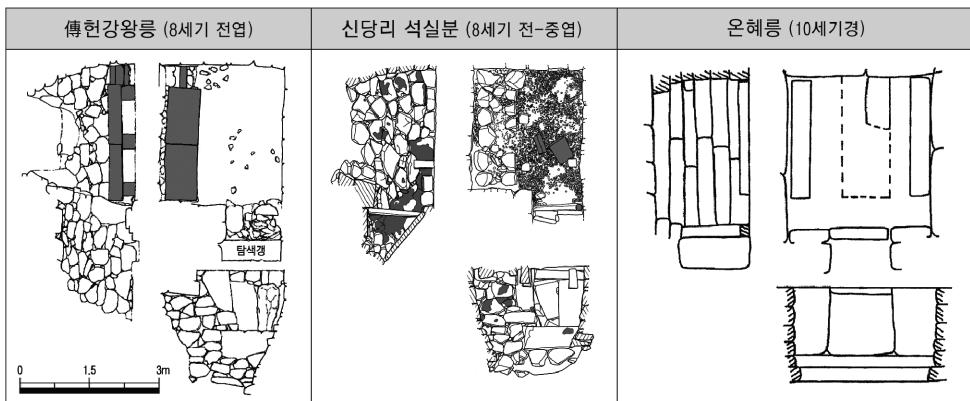
구정동 방형분의 매장주체부 구조와 유사한 통일신라 왕릉은 아직 조사된 사례가 없으나 왕릉에 준하는 고분(이하 준왕릉급 고분) 중에는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 傳현강왕릉(慶州文化財研究所 1995), 신당리 석실분(계림문화재연구원 2013b)



[도면 1] 구정동 방형분 조사 도면
(有光敎一 1936; 國立中央博物館 1998)

1) 매장주체부 구조에 관한 각종 계측치는 경주시·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발간한 신라왕릉 현황조사보고서 (2013a: 310~321; 2013b: 515~516)의 것을 따른다.

이다. 고려왕릉 중 溫鞋陵(김인철 2003: 27~31)도 이와 유사한 편으로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다. [도면 2] 이들과 구정동 방형분의 매장주체부 구조를 비교하여 그 연대를 살펴보자. ①현실 평면 형태, ②벽체 쌓기 방식, ③연도 및 시상(관대) 위치, ④현실 높이, ⑤석재 가공도의 순으로 비교하겠다.



[도면 2] 구정동 방형분 매장주체부 구조와 유사한 통일신라, 고려 (준)왕릉급 고분

(慶州文化財研究所 1995; 계림문화재연구원 2013b; 김인철 2003)

①현실 평면 형태 : 傳현강왕릉은 전-후 2.9m, 좌-우 2.7m, 신당리 석실분은 전-후 2.7m 좌-우 2.4m, 온혜릉은 전-후 3.3m, 좌-우 3.2m이다. 이들은 모두 방형 평면으로 전-후 2.6m, 좌-우 2.3m의 구정동 방형분보다 약간 넓지만 대체로 비슷한 편이다.

②벽체 쌓기 방식 : 傳현강왕릉과 신당리 석실분은 구정동 방형분과 같이 궁륭상으로 벽체를 쌓았다. 반면 온혜릉의 벽체는 5단까지 수직으로 쌓은 뒤 한 단을 고임하고 그 위에 천정을 조성하여 다르다.

③연도 및 시상(관대) 위치 : 傳현강왕릉과 신당리 석실분은 우편재연도이다. 시상은 출입구 반대편에 전-후방향으로 설치되었다. 두 요소 모두 구정동 방형분과 동일하다. 반면 온혜릉은 중앙연도이며 시상은 출입구 정면에 전-후방향으로 설치되어 다르다.

④현실 높이 : 傳현강왕릉은 2.8m이다. 신당리 석실분은 잔존높이가 2.1m이지만 도굴로 인해 상당 부분 파괴된 것으로 원래는 훨씬 높았을 것이다. 반면 온혜릉 현실 높이는 2.0m로 비교적 낮다. 구정동 방형분은 높이가 1.7m에 불과하므로 온혜릉과 유사하다.

⑤석재 가공도 : 벽체, 시상, 연문시설에서 차이점이 관찰된다. 傳현강왕릉은 시상에만 치석한 석재를 사용하였고 신당리 석실분에는 연문시설에만 치석한 석재를 사용하였다. 반면 온혜릉에는 세 요소 모두에 치석한 석재를 사용하여 다르다. 구정동 방형분 또한 모두 치석한 석재를 사용하여 온혜릉과 유사하다.

이상의 구정동 방형분과 유사한 세 (준)왕릉급 고분의 매장주체부에 대하여 비교한 내용을 [표 1]로 정리해 보았다.

[표 1] 구정동 방형분 및 유사 (준)왕릉급 고분 매장주체부 비교

고분 속성	傳현강왕릉 / 신당리 석실분	구정동 방형분	온혜릉
①현실 평면 형태	방형 (2.9×2.7 / 2.7×2.4m)	방형 (2.6×2.3m)	방형 (3.3×3.2m)
②벽체 쌓기 방식	궁륭상 쌓기	궁륭상 쌓기	수직쌓기 후 1단 고임
③연도 및 시상 (관대) 위치	우편재연도, 출입구 반대편 전-후	우편재연도, 출입구 반대편 전-후	중앙연도, 출입구 정면 전-후
④석재 가공도	대부분 미치석, 일부 치석	전체 치석	전체 치석
⑤현실 높이	비교적 높음 (2.8 / 2.1↑m)	비교적 낮음 (1.7m)	비교적 낮음 (2.0m)

구정동 방형분의 매장주체부는 傳현강왕릉 · 신당리 석실분과 온혜릉의 요소를 약간씩 닮아있다. ①현실 평면은 모두 방형이나 ‘②벽체 쌓기 방식, ③연도 및 시상(관대) 위치’는 傳현강왕릉 및 신당리 석실분과, ‘④석재 가공도, ⑤현실 높이’는 온혜릉과 유사한 것이다.

한편 비교대상으로 선정한 (준)왕릉급 고분들의 연대를 살펴보면 傳현강왕릉은 8세기 전엽이 하한(김용성 · 강재현 2012: 183)이며, 신당리 석실분은 8세기 전-중엽 정도(최종규 외 2013: 122~125), 온혜릉은 고려 초기인 10세기대(이상준 2012: 8~13; 박형열 2021: 265~272)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구정동 방형분을 포함한 네 (준)왕릉급 고분의 매장주체부 구조 차이는 약 200년간에 걸친 변화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傳현강왕릉 및 신당리 석실분의 제 속성으로부터 ④석재 가공도가 전체 치석으로, ⑤현실 높이가 낮아진 이후 구정동 방형분이 조영되었고, 또 ②벽체 쌓기 방식이 수직쌓기 후 고임의 방식으로, ③연도 및 시상(관대)의 위치가 중앙연도 및 출입구 정면 배치방식으로 다시 변화한 뒤 온혜릉이 조영되었다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보았을 때 ‘④석재의 가공도와 ⑤현실 높이의 변화 시점’은 구정동 방형분의 상한연대가 될 것이며 또 ‘②벽체 쌓기 방식과 ③연도 및 시상(관대)의 위치가 변

화한 시점'은 하한연대가 될 것이다. 각 속성이 어느 시점에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자.

첫 번째는 '④석재의 가공도가 전체 치석으로 변화한 시점'이다. 이에 관해서는 쌍상총, 마총, 장산 토우총의 사례가 주목된다. 이들 고분은 비록 (준)왕릉급 고분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경주식 전형 횡혈식석실'²⁾로써 신라 횡혈식석실 중 가장 높은 위계에 해당하므로 (준)왕릉급 고분에 대한 발굴조사 자료가 빈약한 현 상황에서 비교자료로써 검토될 수 있다. 세 고분은 벽석을 사과석에 가깝게 다듬어 '品'자형으로 쌓고 연문시설과 시상 또한 치석한 석재를 사용하였다. 특히 장산 토우총의 경우 시상 받침을 여러 매의 판석으로 조립하여 설치하였다는 점이 구정동 방형분의 것과 유사해 주목된다. 장산 토우총의 연대는 8세기 중엽이며 쌍상총과 마총은 더 이른 편이다(최병현 2021: 685~688). 따라서 신라 중앙의 고위계층 고분에는 적어도 8세기 중엽 무렵부터 매장주체부 구축에 치석한 석재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즉 왕릉급 고분에도 마찬가지로 치석한 석재를 사용하였거나 또는 이들 보다 더욱 정밀하게 치석한 석재를 사용하였을 것임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⑤현실 높이가 낮아진 시점'이다. 이에 관해서는 傳효소왕릉이 주목된다. 傳효소왕릉은 1968년 11월 도굴이 행해졌다. 당시 현장을 취재한 신문 기사(朝鮮日報 1968.11.20)에 따르면 석실은 "길이 3m, 폭 1.5m, 높이 1.5m쯤의 화강석"이라고 한다.³⁾

傳효소왕릉은 성덕왕릉으로 비정함에 이견이 적은 傳성덕왕릉의 서편 130m에 위치하여 雙墳 관계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傳성덕왕릉에 비해 봉분의 규모가 소형인 점을 보았을 때 왕릉이 아닌 성덕왕과 가까운 왕족 또는 竜臣이 묻힌陪塚정도로 이해된다(이근직 2012: 268~270). 따라서 傳효소왕릉의 조영연대는 성덕왕이 사망한 737년 인근이지만 그리 멀지 않은 시점일 것이며 위계는 준왕릉급 정도로 볼 수 있다.

8세기 중엽 인근의 준왕릉급 고분인 傳효소왕릉의 현실 높이는 1.5m가량으로 傳현강왕릉의 2.8m, 신당리 석실분의 2.1↑m보다 상당히 낮은 편이다. 이러한 점을 미

2) '경주식 전형 횡혈식석실'이란 (1)현문 시설의 완비, (2)정교하게 다듬고 높이가 높은 시상의 축조, (3)시상 상면에 석재를 가공하여 제작한 시상부속시설을 놓음, (4)방형의 현실 평면, (5)높은 궁릉상 천장, (6)현실의 면적은 대체로 대형, (7)부부합장묘 또는 추가장 하지 않음을 특징으로 하는 신라 최고위층의 무덤 구조이다. (준)왕릉급 고분으로 이해되는 구정동 방형분, 傳현강왕릉, 신당리 석실분 또한 해당 범주에 포함된다(박진혜 2014: 81~101).

3) 해당 기사를 그대로 인용하면 장폭비 2 : 1의 종장방형 현실이 된다. 즉 방형 평면을 기본 속성으로 하는 경주식 전형 횡혈식석실이 아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고분은 준왕릉급에 해당하므로 경주식 전형 횡혈식석실의 가능성이 크다. 그리하여 필자는 해당 계측치에서의 길이를 연도가 포함된 수치로 보고자 한다.

루어 보았을 때 통일신라기 (준)왕릉급 고분의 현실 높이는 8세기 중엽 즈음부터 상당히 낮아지기 시작하였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②벽체 쌓기 방식이 수직쌓기로 변화한 시점’과 ‘③연도 및 시상(관대)의 위치가 중앙연도 및 출입구 정면으로 변화한 시점’이다. 수직쌓기는 경주식 전형 횡혈식석실에서 확인되지 않는 벽체 쌓기 방식이다. 중앙연도의 경우 경주식 전형 횡혈식석실은 물론 신라 횡혈식석실의 성립부터 소멸까지 꾸준하게 확인되는 속성이므로 시간성을 반영하는 요소로 보기 어렵다(최병현 2021: 677~688). 출입구 정면 시상(관대)의 경우 좌-우방향으로 설치된 사례는 경주식 전형 횡혈식석실에서 대다수를 차지하지만(박진혜 2014: 76~77 · 83) 온혜릉과 같이 전-후방향으로 설치된 사례는 찾기 힘들다.

두 요소가 모두 확인되는 통일신라-고려 (준)왕릉급 고분 중 가장 빠른 사례는 943년의 高麗 太祖 顯陵이다. 또한 현재까지 매장주체부가 조사된 대다수의 고려왕릉은 해당 요소들을 전부 충족하고 있어 통일신라 (준)왕릉급 고분의 조사 사례가 부족한 현재로서는 고려왕릉만의 특징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 따라서 이들을 종합하였을 때 구정동 방형분 매장주체부 구조에서 확인되는 제 속성은 늦어도 8세기 중엽에는 등장하였고 10세기경에 소멸하였으리라 판단된다.

2. 안상문 관대

다음으로는 출토유물 중 하나인 안상문 관대를 살펴보자. 석실의 서편에 치우쳐 설치된 이 관대는 여러 매의 판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대석 3매, 중대석 4매, 상대석 2매이다.⁴⁾ 이 중 중대석의 동쪽면



[사진 1] 구정동 방형분 안상문 관대 중대석
(2020년 10월 촬영)

4) 이 유물은 조사 당시의 도면 [도면 1]과 有光敎一(1936 : 81-82)의 기술을 보았을 때 ‘관대’ 일괄 1점으로 인지되었다. 그런데 1964-65년 복원공사 시에 해당 유물의 하대석 3매와 중대석 4매를 ‘석관’으로, 상대석(판석으로 기술) 2매를 별도의 ‘유물대’ 또는 ‘시상’으로 복원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孫龍文 1966). 그러나 이 유물을 자세히 살펴보면 조립된 중대석 4매 내부 공간의 폭이 30cm 정도로 매우 좁으며, 각 판석 인쪽을 향하는 부분의 가공도가 바깥 부분에 비해 거칠다는 것을 알 수 있다(서쪽 중대석은 안과 밖이 거꾸로 놓여 있음). 즉 시신을 내부에 안치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사진 1]. 따라서 필자는 해당 판석재 일괄을 관을 받치는 ‘관대’ 또는 시신을 직접 받치는 ‘시상’ 1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본고에서는 관장식으로 추정되는 금속제품이 출토되었다는 점, 최초 보고자인 有光敎一가 관대

에 한하여 안상문 3개가 彫飾되어 있다.

이러한 판석재와 안상문의 조합은 여타 통일신라 왕릉의 床石과 석탑 상층기단에서도 확인된다. 상석은 왕의 시신을 모신 능의 전면에 제사를 거행하기 위한 용도로 설치된 것이며 석탑 또한 부처의 사리를 안치한 塔廟로써 모두 왕 또는 부처를 모시는 것이므로 의미가 통한다. 전반적인 형태도 중대석 4매를 조립한 石函의 모습이고 안상문을 새길 판석의 높이와 너비 또한 유사하다. 따라서 이들 간의 비교를 통해 구 정동 방형분 안상문 관대의 연대를 파악해보자.

통일신라 왕릉 상석의 연대를 먼저 살펴보면 傳성덕왕릉 상석은 8세기 중-후엽⁵⁾, 원성왕릉은 798년경, 흥덕왕릉은 826년 또는 836년경⁶⁾의 순이다. 傳경덕왕릉의 연대는 연구자마다 차이가 있으나 金龍星(2012: 131~145), 裴魯燦(2020: 987~991)의 견해를 따라 흥덕왕릉 이후의 9세기 전-중엽으로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통일신라 석탑 중 상층기단에 안상문이 조식된 사례들의 연대를 살펴보자. 이에 관해서는 김지현의 연구(2015: 64~76)를 참고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그의 통일신라 석탑 편년 안을 전제로 하여 석탑에 조각된 안상문을 나열, 형식분류 및 전개양상을 살펴본 것이다. 그의 분석자료 중 상층기단에 안상문이 조식된 대표 사례들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경주 무장사지 삼층석탑이 8세기 후기로 가장 이른 것이며 그 다음으로 8세기 말~9세기 초의 창녕 술정리 서삼층석탑, 9세기 전기의 칠곡 기성동 삼층석탑, 835년경의 부산 범어사 삼층석탑, 9세기 말기의 영동 영국사 삼층석탑의 순이다. 이상의 안상문이 조식된 통일신라 왕릉 상석 4기와 석탑 상층기단 5기의 도면 및 사진을 연대순으로 나열하면 [도면 3]의 순서가 설정된다.

해당 순서를 기준으로 안상문의 변천양상을 도출해보자. 이를 위해 안상문의 각 속성에 대한 분류를 시도한다.⁷⁾ ①안상문의 상단 중앙에 위치한 花頭의 형태는 탄력적인 곡선으로 마치 납작한 보주의 형상을 띠는 寶珠形, 중괄호를 시계 반대방향으로 90° 돌린 모습과 유사한 팔호형으로 분류된다. 보주형은 傳성덕왕릉과 무장사지 석탑, 술정리 석탑, 기성동 석탑 / 팔호형은 원성왕릉, 흥덕왕릉, 傳경덕왕릉, 범어사

로 이해하였다는 점을 수용하여 ‘관대’로 명명한다.

5) 傳성덕왕릉 陵園石刻의 설치는 성덕왕 사망시점인 737년, 경덕왕대(742~765), 혜공왕대(765~780) 등 의 견이 분분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단 8세기 중-후엽으로 넓게 설정한다.

6) 흥덕왕의 몰년은 836년이지만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에는 826년에 사망한 定穆王后(章和夫人 또는 昌花夫人)의 능에 합장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흥덕왕릉 능원석각이 826년에 완비된 것인지, 836년에 後輔된 것인지는 특정하기 어렵다.

7) 안상문의 각 세부 명칭은 김지현의 연구(2015: 69~72)를 인용하거나 필자가 자체적으로 명명한 것임을 밝혀둔다.

통일신라 왕릉 상석 (구정동 방형분 관대 포함)			통일신라 석탑 상층기단	
	평면도	정면도		
傳성덕왕릉			보주형 + 파문형 + 人자형	
구정동방형분			보주형 + 파문형 + 人자형	
원성왕릉			괄호형 + 반원운문형 + 人자형	
흥덕왕릉			괄호형 + 반원운문형 + -자형	
傳경덕왕릉			괄호형 + 편원운문형 + -자형	
(상석 평면도) 0 2 4m		(상석 정면도, 석탑) 0 1 2m		

[도면 3] 구정동 방형분 관대와 통일신라 왕릉 상석, 석탑 상층기단의 비교
(전통대 2013b; 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 2011 · 2018; 國立中央博物館 1998; 忠清大學博物館 1998)

석탑, 영국사 석탑이 해당한다.

화두의 좌·우측에 한 번 이상의 곡선으로 이루어진 부분인 弧部는 각 단위의 형태와 배열방식이 유효한 속성이다. ②호부 각 단위의 형태는 크게 탄력적이고 장식적인 선으로 마치 파도가 너울을 이루는 듯한 波文形, 완만하게 연결되어 마치 구름의 형상과 유사한 雲文形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운문형은 다시 弧 하나의 단위가 半圓에 가까운 반원운문형과 납작한 偏圓雲文形으로 나누어진다. 파문형은 傳성덕왕릉, 무장사지 석탑, 술정리 석탑, 기성동 석탑 / 반원운문형은 원성왕릉, 흥덕왕릉, 범어사 석탑 / 편원운문형은 傳경덕왕릉, 영국사 석탑이 해당한다.

③호부의 배열방식은 화두의 높이가 높고 양 측면으로 갈수록 높이가 낮아지는 人자형, 높이 차이가 없는 一자형으로 구분된다. 人자형은 傳성덕왕릉, 원성왕릉, 무장사지 석탑, 술정리 석탑 / 一자형은 흥덕왕릉, 傳경덕왕릉, 기성동 석탑, 범어사 석

탑, 영국사 석탑이 해당한다. 각 속성을 앞서 제시한 통일신라 왕릉과 석탑의 연대에 따라 변천을 도출해보면 [표 2]와 같이 정리된다.

[표 2] 통일신라 왕릉 상석 및 석탑 상층기단 안상문의 변천

①화두의 형태 : 보주형 → 팔호형
보주형 : 8세기 중-후엽(傳성덕왕릉) ~ 9세기 전기(기성동 석탑) 팔호형 : 798년경(원성왕릉) ~ 9세기 말기(영국사 석탑) 또는 그 이후
②호부 각 단위의 형태 : 파문형 → 반원운문형 → 편원운문형
파문형 : 8세기 중-후엽(傳성덕왕릉) ~ 9세기 전기(기성동 석탑) 반원운문형 : 798년경(원성왕릉) ~ 835 · 836년경(범어사 석탑, 傳済덕왕릉) 편원운문형 : 9세기 전-중엽(傳경덕왕릉) ~ 9세기 말기(영국사 석탑) 또는 그 이후
③호부의 배열방식 : 人자형 → 一자형
人자형 : 8세기 중-후엽(傳성덕왕릉) ~ 8세기 말-9세기 초(원성왕릉, 술정리 석탑) 一자형 : 9세기 전기(기성동 석탑) ~ 9세기 말기(영국사 석탑) 또는 그 이후

해당 변천상을 기준으로 구정동 방형분 관대의 안상문 연대를 살펴보자. 구정동 방형분 관대의 안상문은 화두 : 보주형+호부 각 단위의 형태 : 파문형+호부의 배열방식 : 人자형의 조합으로 이는 8세기 중-후엽(傳성덕왕릉)~8세기 말-9세기 초(원성왕릉, 술정리 서석탑)에 확인된다. 한편 9세기 전-중엽(傳경덕왕릉) 이후부터는 안상문의 형태가 화두 : 팔호형+호부 각 단위의 형태 : 편원운문형+호부의 배열방식 : 一자형의 조합이므로 구정동 방형분 관대의 것과는 상당히 다르다.

안상문 관대를 통해서 연대를 참고할 수 있는 요소는 한 가지가 더 있다. '통일신라 왕릉 상석의 조립에 사용된 석재의 수량과 배열방식'이다. 다시 [도면 3]에서 좌측의 평면도를 살펴보자. 傳성덕왕릉 상석은 상대석에 2매의 석재를 사용하였으며 기단부는 12매 또는 13매의 석재가 좌우대칭이 맞지 않도록 배열되었다. 이후 원성왕릉, 흥덕왕릉, 傳경덕왕릉은 상대석에 1매의 석재만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변화했다. 기단부는 원성왕릉, 흥덕왕릉의 경우 석재 11매에 좌우대칭 배열로 변화하였으며, 이후 傳경덕왕릉에 이르러서는 수량이 대폭 감소한 4매에 좌우대칭 배열로 변화했다. 이러한 상석 조립에 사용된 석재 수량의 전반적인 감소는 석탑에서도 그 수량은 다르지만 방향성이 일치하여 참고가 된다.

한편 구정동 방형분 관대의 경우 상대석에 2매의 석재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석실의 바닥면을 관대의 기단부로 본다면 이들을 구성하는 석재 또한 대칭을 이루지 않은 채 상당히 많은 수의 석재를 사용하였다. 이는 여타 왕릉 상석보다 傳성덕왕릉의 것(8세기 중-후엽)과 가장 유사하다. 원성왕릉(798년경)부터는 상대석에 1매의

석재를 사용하고 기단부 석재를 좌우대칭에 맞게 배열하였다는 점에서 구정동 방형분과 다르다. 따라서 관대 및 석실 바닥면에 사용된 석재의 수량 및 배열방식을 통해 보았을 때도 구정동 방형분 안상문 관대의 연대는 8세기 중-후엽부터 798년경까지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3. 당식 대장식구 교구

출토유물 중 하나인 은제 교구 또한 연대 추정 자료로써 이용될 수 있다. 구정동 방형분 출토 은제 교구는 총 2점이다. 한 점은 완형으로 전체 길이가 약 4cm, 외륜의 폭은 약 2.5cm인 소형이며 다른 한 점은 교판이 결실되어 외륜과 교침만 잔존하며 외륜의 폭이 5.5cm가량인 대형이다. 소형 교구는 형태와 크기로 보았을 때 唐式 帶裝飾具이며, 대형 교구는 마구 부속품일 가능성이 있으나 자세한 용도는 판단하기 어렵다. 이번 절에서는 당식 대장식구인 소형 교구를 기준에 도출된 당식 대장식구 편년안을 활용하여 그 연대를 판단해보자.

[표 3] 당식 대장식구 교구의 변천 (崔正凡 2018: 221~226를 기준으로 정리)

제1단계 (6세기 중엽~7세기 초)
외륜과 교판을 한 번에 주조하고 별도로 주조된 교침을 얇은 철제 횡축을 통해 연결시키는 '일체주조' 방식 또는 교판의 앞뒷면을 별도로 제작한 후 장방형 연결판을 연결하여 이를 횡축에 말아 제작하는 '조립결구' 방식로 제작된다. 개개 구성품의 단면은 '일자형'이다.
제2단계 (7세기 중엽~8세기 후반 또는 9세기 초반)
하나의 판을 접어서 횡축을 감싸고 외륜과 결구하는 '권상제작' 방식이 일반적이다. 개개 구성품의 단면은 '둔각'을 이룬다.
제3단계 (8세기 후반 또는 9세기 초반~960년경)
'권상제작' 방식이 지속된다. 교판이 전반적으로 세정해진다. 개개 구성품의 단면은 '일자형 또는 직각'을 이룬다.

당식 대장식구의 편년에 관해서는 崔正凡의 연구(2018: 221~226)가 참고된다. 그는 6세기 초엽부터 고려 전기까지 존속했던 당식 대장식구에 대한 전반적인 편년을 시도하였다. 대장식구의 각 요소인 교구, 과판, 대단장식 각각의 형식적 변화상에 따른 단계를 설정하고 절대연대 자료를 참고하여 편년을 마련한 것이다. [표 3]은 그가 도출한 당식 대장식구 각 요소의 변천 중 교구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정리한 것이다.

또 崔正凡(2021: 65~76)은 신라왕경 주변의 분묘유적에서 출토된 당식 대장식구 자료를 집성, 그의 상술한 편년안을 기준으로 연대를 부여하는 작업도 진행하였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2021년 2월을 기준으로 신라왕경 주변의 분묘유적에서 출토된 당식 대장식구는 총 44式에 이른다고 한다. 이 중 구정동 방형분 출토품과 함께 제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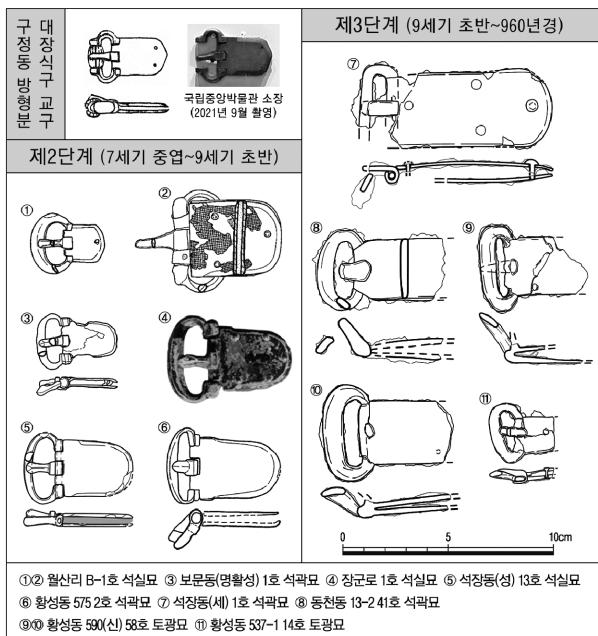
단계, 제3단계에 해당하는 당식 대장식구 중 교구의 잔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사례를 제시한 것이 [도면 4]이다.

구정동 방형분 출토 당식 대장식구 교구를 이들과 비교해 보자. 제2단계에 속하는 당식 대장식구 교구는 교판의 형태가 방형 또는 장방형에 가깝다. 단부는 비스듬하게 마감되어 단면 둔각을 이루고 있다. 이는 평면도를 보았을 때 꺾이기 시작하는 지점이 표현된 점, 측면도를 보

았을 때 끝부분이 비스듬하게 마무리된 점을 통해 알 수 있다.

반면 제3단계에 속하는 교구들은 교판이 세장해져 형태가 세장방형에 가깝다. 앞 단계의 것들은 교판의 길이가 통상 2~4cm 정도에 불과하지만 이 단계의 것들은 결실되었음에도 4cm를 상회하고 있으며 좁게 모여 마무리되려는 모습도 관찰되지 않으므로 잔존 부분으로부터 적어도 1~2cm 정도는 더 길었을 것이다. 단부는 일자 또는 직각에 가깝게 마무리되었다. 이 또한 결실된 사례가 많아 끝부분의 마무리 형태를 확실하게 파악할 수는 없으나 평면도를 보았을 때 꺾이기 시작하는 지점이 표시되지 않고 점선으로 희미하게 표현된 점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즉 제3단계의 교구는 대체로 [도면 4]의 ⑦석장동(세) 1호 석곽묘 출토품과 유사하였을 것이다.

구정동 방형분 교구는 두 단계 중 제2단계의 것과 더 유사해 보인다. 교판의 형태는 장방형에 가깝고, 단부 처리방식의 경우 평면도에서는 꺾이는 지점이 표현되지 않았으나 측면도를 보았을 때 비스듬하게 마무리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실물을 관찰하였을 때 더욱 명확하다.⁸⁾ 다만 외륜



[도면 4] 구정동 방형분과 신라왕경 주변 분묘유적 출토
당식 대장식구 교구 (有光敎—1936, 각종 발굴조사보고서)

8) 崔正凡(2021: 72~73 · 75) 또한 구정동 방형분 교구를 제2단계로 이해하고 있어 필자의 견해와 일치한다.

중간에 玉形의 장식이 부가된 점은 적어도 한반도 출토품에서는 유사 사례를 찾을 수 없었다. 이러한 점은 소유자가 왕을 위시한 최고위층이었기에 장식성을 증대시킨 것으로 잠정 판단된다. 상술한 崔正凡의 편년안을 따랐을 때 제2단계는 7세기 중엽부터 길게 잡아 9세기 초반까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구정동 방형분 출토 당시 대장식구 교구의 연대는 9세기 초반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다.

이상으로 1920년 발굴조사로 취득된 구정동 방형분의 내부적 속성 세 요소의 연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구정동 방형분의 매장주체부 구조는 늦어도 8세기 중엽부터, 안상문 판대는 8세기 중엽부터 9세기 초까지, 당시 대장식구 교구는 7세기 중엽부터 9세기 초반까지로 생각된다. 이를 통해 보았을 때 구정동 방형분의 연대는 내부적 속성으로만 일단 판단하자면 8세기 중엽부터 9세기 초까지에 해당한다는 잠정적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III. 외부적 속성

구정동 방형분에 관한 외부적 속성은 이전부터 연대를 추정하는 주요한 자료로써 꾸준히 제시되어왔다. 외부적 속성은 호석 구조와 십이지신장상 도상이 주로 언급된다. 그러나 이들의 연대는 호석에 십이지신장상이 조각된 왕릉 중 비교적 빠른 시기인 8세기 후엽 인근이라는 견해와 가장 늦은 시기인 9세기 중엽 또는 그 이후라는 견해로 양분된 상황이다.

한편 앞 장에서 필자가 분석한 내부적 속성의 연대는 8세기 중엽부터 9세기 초까지로 전자에 가깝다. 이것이 관철되기 위해서는 외부적 속성에서도 이른 시기의 특징이 관찰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구정동 방형분의 외부적 속성을 재검토 함으로써 그 가능성을 타진해보고자 한다.

1. 호석 구조

외부적 속성 중 첫 번째로 검토할 대상은 호석 구조이다. 통일신라 왕릉 중에는 陵碑의 題額이 확인되거나 葬地紀事에 기록된 사찰과의 위치관계가 명확하여 괴장자 및 조영연대를 확실하게 비정 가능한 것들이 있다. 傳신문왕릉(효소왕릉沒702),

원성왕릉(물798), 흥덕왕릉(建826 또는 836)이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傳성덕왕릉은 성덕왕릉(물737)으로, 傳진덕여왕릉은 십이지신장상이 조각된 통일신라 왕릉 중 가장 늦은 9세기 중엽의 것으로 파악함에 이견이 거의 없다. 이를 통해 도출된 통일신라 왕릉의 상대순서는 ‘傳신문왕릉(효소왕릉) → (傳)성덕왕릉 → 원성왕릉 → 흥덕왕릉 → 傳진덕여왕릉’이다.

해당 상대순서를 기준으로 金龍星(2012: 133~135)은 호석에 십이지신장상이 조각된 통일신라 왕릉에 대한 호석 구조의 변천을 설명하였다. 호석에 십이지신장상이 조각된 통일신라 왕릉은 구정동 방형분을 제외하면 모두 갑석과 지대석 사이를 탱석과 면석으로 결구한 ‘판석면석’의 구조이다. 그는 판석면석 호석의 갑석, 지대석 단면 형태를 기준으로 A~D형의 네 형식으로 분류한 후 앞선 통일신라 왕릉의 상대순서를 참고하여 A형 → B형 → C형 → D형의 순서로 변화하였음을 밝혔다. 각 형식의 특징은 [표 4]와 같다.

[표 4] 통일신라 십이지신장상 왕릉 호석 구조의 변천 (金龍星 2012: 133~135를 기준으로 정리)

A형 : 傳성덕왕릉, 용강동 고분 ¹¹⁾
갑석과 지대석의 선단이 ‘ㄷ’자형으로 평탄하게 절단된 것
B형 : 원성왕릉, 흥덕왕릉, 傳경덕왕릉, 傳현덕왕릉, 황복사지 동편 폐고분지
갑석의 선단이 상하에 부연을 두어 ‘凸’자형으로 치석되고 지대석의 선단이 3단의 승급받침으로 구성된 것
C형 : 傳김유신묘
갑석은 B형, 지대석은 D형과 유사한 것
D형 : 傳진덕여왕릉
갑석의 선단이 ‘凸’자형과 유사하나 상단에 부연이 없어 단면 ‘ㄱ’자에 가깝고 지대석의 선단이 2단의 승급받침으로 구성된 것

한편 통일신라 왕릉 호석은 판석면석 호석 외에 ‘治石四塊石’의 호석 구조도 확인된다. 갑석과 지대석은 선단이 ‘ㄷ’자형으로 평탄하게 절단되며 그 사이의 면석은 치석한 사괴석을 3단 혹은 5단 수직쌓기한 구조이다. 치석사괴석 호석은 傳신문왕릉(효소왕릉), 신당리 석실분, 傳민애왕릉, 傳현강왕릉, 傳정강왕릉⁹⁾, 傳효소왕릉¹⁰⁾이 해당한다.

이들 중 연대가 비교적 명확한 것은 702년경의 傳신문왕릉(효소왕릉), 앞 장에서

9) 傳현강왕릉과 傳정강왕릉의 호석 구조는 갑석이 없고 면석은 치석사괴석을 4단 수직쌓기한 형태로 복원되어 있다. 그러나 이진락(2013)은 현재 능원에 방치되어있는 舊材와 『朝鮮古蹟圖譜五』의 사진을 관찰하여 원래는 선단 ㄷ자형의 갑석이 존재하였으며, 면석은 3단 수직쌓기한 것임을 밝혔다. 본고에서는 해당 견해를 따른다.

10) 傳효소왕릉의 호석 구조는 높이 15cm, 너비 40~50cm 정도로 치석한 사괴석을 1m 가량으로 쌓은 것이라고 한다(윤경렬 1971: 58~59; 전통대 2013a: 219). 이를 따르면 해당 고분 또한 치석사괴석 호석 구조로 판단할 수 있다.

살펴본 8세기 전엽의 傳 헌강왕릉, 8세기 전-중엽의 신당리 석실분, 737년 인근의 傳 효소왕릉 정도가 있다. 그리고 (傳)성덕왕릉의 초축은 737년경으로 8세기 중엽 이른 시점이라는 점 또한 감안하였을 때 치석사괴석 호석 구조는 700년을 전후한 시점에 등장, 8세기 중엽 판석면석 A형 호석과 공존하다 그 이후 소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상의 통일신라 왕릉 호석의 각 형식의 구조적 특징과 그 변천에 대하여 정리한 것이 [도면 5]이다.

구정동 방형분	치석사괴석	판석면석 A형	판석면석 B형	판석면석 C형	판석면석 D형
→: 선 후, = : 공 존 後 = 漢, 建 : 건립년 追 : 축조년	傳신문왕릉 (효소왕릉 沒702) 신당리 석실분, 傳민애왕릉 傳헌강왕릉, 傳경강왕릉 傳효소왕릉	傳성덕왕릉 (성덕왕릉 没737) 옹강동 고분 (改修)	원성왕릉 (沒798) 흘덕왕릉 (建826 또는 836) 傳경덕왕릉, 傳헌덕왕릉 황복시지 동면 폐고분지	傳김유신묘 (추정 흘무왕릉) (追 835, 以後 改修)	傳진덕여왕릉 (추정 9세기 중엽)

[도면 5] 구정동 방형분과 통일신라 (준)왕릉급 고분 호석 구조의 변천

(전통대 2013b; 金龍星 2012, 裴魯燦 2020)

해당 변천상을 기준으로 구정동 방형분 호석 구조의 연대를 살펴보자. 구정동 방형분의 갑석과 지대석은 선단이 L자형으로 평坦하게 절단된 형태이다. 이러한 갑석 및 지대석의 선단처리 방식은 통일신라 왕릉 중 비교적 이른 시기의 형식인 치석사괴석 및 판석면석 A형 호석에서만 확인된다. 면석의 경우 치석한 사괴석을 3단 수직 쌓기 하였는데 이는 치석사괴석 호석과 동일하다. 따라서 구정동 방형분 호석의 전반적 형태는 치석사괴석 호석과 가장 가깝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정동 방형분의 호석 구조에서는 치석사괴석 호석과는 다른 점도 확인된다. 십이지신장상이 부조된 탱석의 존재이다. 탱석은 판석면석 호석에서 확인되는 요소로써 탱석 자체는 판석면석 A형에서 처음 확인되나 십이지신장상이 부조되는

11) 현재 이 고분은 면석끼리만 연결된 호석 구조로 복원되어 있다. 그러나 남시진(2013: 237)과 이진락(2014: 260)에 따르면 현재의 호석 구조는 잘못 복원된 것이며 원래는 탱석이 있었다고 한다. 그들은 舊材 면석을 관찰한 결과 탱석과 결구하기 위해 가장자리를 안쪽으로 약간 들어가게 치석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면석만으로는 봉토가 바깥으로 밀리지 않도록 방지하는 호석의 본래 역할을 할 수 없으므로 판석면석 호석은 반드시 면석과 탱석이 함께 결구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본고에서는 해당 견해를 따른다.

것은 판석면석 B형부터이다. 즉 구정동 방형분 호석 중 십이지신장상 탱석의 존재와 그 형태는 판석면석 B~D형에 해당하는 것이다.

구정동 방형분의 호석 구조는 치석사괴석과 판석면석 B~D형의 요소가 모두 확인되므로 두 형식의 사이에 둘 수 있을 것이다. 치석사괴석 호석은 가장 늦은 것이 8세기 전-중엽이며 판석면석 B형 호석 중 가장 빠른 것은 798년경의 원성왕릉이다. 따라서 호석 구조를 통해 본 구정동 방형분의 연대는 8세기 전-중엽부터 798년경까지로 볼 수 있다.

2. 십이지신장상 도상

두 번째로 검토할 대상은 십이지신장상 도상이다. 신라왕릉 호석에 조각된 십이지신장상은 明光鎧를 착용하고 있는 ‘무복 십이지신장상’과 廣袖의 長袍에 褙를 착용하고 있는 ‘평복 십이지신장상’으로 구분된다. 이 중 무복 십이지신장상이 조각된 왕릉은 傳 성덕왕릉, 원성왕릉, 흥덕왕릉, 傳 경덕왕릉, 능지탑 무복 십이지신장상 탱석과 황복사지 동편 폐고분지(이하 능지탑+황복사지),¹²⁾ 傳 진덕여왕릉 그리고 구정동 방형분이 있다. 이들 왕릉의 호석에 조각된 무복 십이지신장상을 앞서 설명한 ‘(傳) 성덕왕릉 → 원성왕릉 → 흥덕왕릉 → 傳 진덕여왕릉’의 순서로 나열해보면 도상적 변천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변천상을 살피고 구정동 방형분과 비교함으로써 그 연대를 파악해보자.

필자가 통일신라 왕릉 무복 십이지신장상 도상을 왕릉별, 십이지별로 나열한 뒤 분석해본 결과 시간성을 가장 뚜렷하게 반영하는 것은 正北에 배치되는 子상과 正南의 午상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부조된 여타 십이지신장상과는 달리 傳 성덕왕릉 십이지신장상은 丸彫로 조성되었다. 이 상들은 대다수가 파괴되어 자세나 持物 등을 알 수 있는 상이 소수에 불과하다. 특히 子상과 午상은 파괴의 정도가 다른 상에 비해 심하여 분석을 진행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무복 십이지신장상 중 부조된 子상, 午상을 통해 도상적 변천을 살펴보겠다. 그리고 傳 성덕왕릉의 경우 후술하겠으나 잔존상태가 양호한 편이면

12) 능지탑 무복 십이지신장상과 황복사 동편 폐고분지의 석재는 크기와 암질이 서로 일치한다는 점을 통해 같은 왕릉의 것으로 보는 견해가 제시된 바 있다. 장호진 · 강량지(2020: 95~96); 聖林文化財研究院(2020: 456~468). 본고에서는 해당 견해를 따른다.

서 다른 상들에 비해 특징적인 자세로 판단되는 寅상에 한하여 비교를 시도해보고자 한다.



[도면 6] 구정동 방형분과 통일신라 왕릉 호석 무복 십이지신장 子, 牛상 도상 (전통대 2013b)

子상, 牛상의 도상적 변천부터 살펴보자. [도면 6]은 구정동 방형분과 통일신라 왕릉 호석 무복 십이지신장상 중 子상과 牛상의 도상이다.¹³⁾ 子상부터 살펴본다. 원성왕릉 子상은 머리가 오른쪽을 향하고 있다.¹⁴⁾ 오른손은 단검을 쥐고 왼손은 허리에 두고 있다. 天衣는 모두 어깨 아래로 진행된다. 흥덕왕릉 子상은 머리가 정면을 향하고 있다. 양손은 끝부분이 처리된 둔기를 아래로 향하도록 쥐고 있다. 천의는 어깨 위·아래 모두로 진행된다. 傳경덕왕릉 子상은 세부적인 표현만 다를 뿐 대체로 흥덕왕릉과 유사하다. 능지탑+황복사지 子상은 머리가 정면을 향하는 점이 흥덕왕릉, 傳경덕왕릉과 같다. 끝부분이 처리된 둔기를 잡은 점도 유사하다. 하지만 해당 지물을 머리의 왼쪽에 향하도록 든 점, 천의의 표현이 더욱 화려해져 畫面 내부를 꽉 차게 표현한 점은 다르다. 傳진덕여왕릉 子상은 머리가 왼쪽을 향하고 있다. 오른손으로 둔기 또는 검을 쥐고 있으며 그 끝은 머리 왼쪽을 향한다. 천의의 표현은 어깨

13) 구정동 방형분 십이지신장 子상에 대하여 이근직(2012 : 138)은 본래 戌상인데 잘못 복원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일제강점기 유리건판의 '구정동 방형분 북측면 호석 노출 상횡인 NO無200177'을 보면 오른쪽인 서편에 亥상, 중앙에 子상, 왼쪽인 동편에 丑상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필자가 해당 사진을 확인해본 바 현재의 子상은 제 위치에 올바르게 위치함을 알 수 있었다.

14) 좌우 구분은 관찰자의 기준이 아닌 십이지신장상을 기준으로 서술한다.

위 · 아래 모두로 진행된다. 이 왕릉급 고분은 여타 왕릉과는 달리 전체적으로 조각이 단순한 점, 넓은 소매가 표현되지 않은 점이 큰 특징이다.

다음으로 午상을 살펴본다. 원성왕릉 午상은 머리가 정면에서 약간 왼쪽을 향하고 있다. 오른손엔 화염검을 쥐고 왼손은 왼쪽 가슴에 두고 있다. 천의는 子상과 마찬가지로 모두 어깨 아래로 진행된다. 흥덕왕릉 午상은 머리가 정면을 향하고 있다. 양손은 검 혹은 둔기가 아래를 향하도록 쥐고 있다. 천의는 어깨 위 · 아래 모두로 진행된다. 傳경덕왕릉 午상의 경우 머리가 정면을 향하는 점은 흥덕왕릉과 같다. 하지만 검을 오른손으로만 쥐고 그 끝이 오른쪽 아래를 향하도록 비스듬하게 둔 점, 왼손에는 화염보주를 들고 왼쪽 가슴에 둔 점은 다르다. 천의는 어깨 위에는 오른쪽에만 짧게 진행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모두 어깨 아래를 향한다. 능지탑+황복사지 午상은 천의가 화려하게 진행되어 화면 내부를 꽉 차게 표현한 점을 제외하고는 傳경덕왕릉과 같다. 傳진덕여왕릉 午상은 머리가 정면에서 약간 왼쪽을 향하고 있다. 오른손엔 검을 쥐고 왼손은 왼쪽 가슴에 두고 있다. 이 왕릉급 고분의 午상 또한 子상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조각이 단순한 점, 넓은 소매가 표현되지 않은 점이 큰 특징이다.

상술한 각 십이지신장 子상과 午상의 도상적 특징인 두향, 지물, 자세, 천의의 진행 방향을 통해 보았을 때 각 왕릉은 4개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子상은 ‘원성왕릉 / 흥덕왕릉, 傳경덕왕릉 / 능지탑+황복사지 / 傳진덕여왕릉’으로, 午상은 ‘원성왕릉 / 흥덕왕릉 / 傳경덕왕릉, 능지탑+황복사지 / 傳진덕여왕릉’으로 나누어지는 것이다.

구정동 방형분의 子상과 午상은 798년경의 원성왕릉 유형에 가장 가까워 보인다.¹⁵⁾ 子상의 경우 다른 지물을 들고 있는 점, 천의가 어깨 위로 향한 점¹⁶⁾은 다르지

15) 구정동 방형분 십이지신장상의 도상을 분석한 有光敎一(1936: 99~100), 姜友邦(1990: 374), 張賢熙(1997: 51~53, 71), 陳政煥(2009: 150) 또한 원성왕릉 것과의 유사성을 지적하며 그 연대를 원성왕의 물년인 798년 인근으로 판단한다. 9세기 중엽으로 판단하는 이근직(2012: 324~325) 또한 원성왕릉 십이지신장상 도상을 계승한 것으로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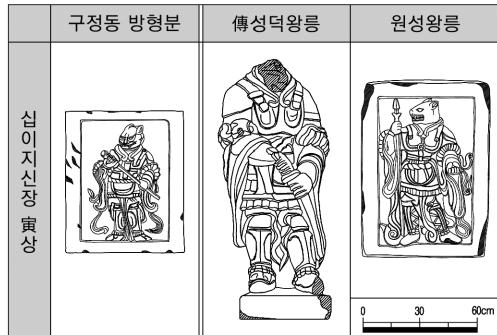
그러나 임영애(2020: 322~323)는 구정동 방형분 십이지신장상의 부조 높이가 낮다는 점을 들어 9세기 중엽 이후로 판단한다. 호석에 십이지신장상이 조각된 통일신라 왕릉의 탱석 높이가 대체로 90cm 이상인 반면, 가장 높은 시기인 9세기 중엽으로 편년되는 傳진덕여왕릉 탱석 높이는 약 73cm로 낮아졌다는 점에 기인한 듯하다.

구정동 방형분의 탱석 높이는 약 74cm로 傳진덕여왕릉과 유사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판석면석 A형 호석으로 8세기대에 해당하는 용강동 고분 外護石 역시 높이가 약 78cm로 낮은 편이다. 따라서 십이지신장상 부조 높이가 반드시 시간성을 반영한다고 보기기는 어렵다.

16) 구정동 방형분의 모든 십이지신장상에 대한 천의의 진행 방향을 살펴보면 正北의 子상과 北西의 亥상 2기만이 천의가 어깨 위 · 아래로 진행되며 나머지 北東의 丑상부터 시계방향대로 西北의 戌상까지의 10기는 천의가 어깨 아래로만 진행된다. 이러한 점은 구정동 방형분 십이지신장상의 조각에 참여한 畫工이 여러 명 참여하였다고 가정했을 때, 子상과 亥상을 작업한 공인과 나머지 상을 작업한 공인 간 표현 방식의 차이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만 두향과 자세는 원성왕릉 子상과 유사하다. 午상의 경우 머리가 약간 오른쪽을 향하지만 정면을 바라보고 있으며 지물, 자세, 천의의 진행 방향 또한 원성왕릉 午상과 닮아있다. 따라서 子상과 午상의 도상을 보았을 때 구정동 방형분은 원성왕릉의 조영연대인 798년 인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傳성덕왕릉 십이지신장 寅상을 살펴보자. [도면 7]은 구정동 방형분과 傳성덕왕릉, 원성왕릉 십이지신장상 寅상의 도상이다. 傳성덕왕릉의 십이지신장상들은 모두 몸체가 정면을 바라보고 있다. 그런데 오직 寅상만 몸체를 비스듬하게 하여 오른쪽이 앞, 왼쪽이 뒤를 향하고 있다. 양 손으로는 검을 들고 있는데 오른손으



[도면 7] 구정동 방형분과 傳성덕왕릉, 원성왕릉

십이지신장 寅상 도상 (전통대 2013b)

로 칼자루를 쥐고 왼손으로는 검집을 잡고 있어 마치 곧 拔劍하려는 자세이다. 이러한 점은 傳성덕왕릉 십이지신장 寅상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해당 자세는 구정동 방형분의 십이지신장 寅상에서도 확인된다. 이 상은 부조로 조각되었기 때문에 환조로 조각된 傳성덕왕릉과는 달리 어느 쪽이 앞을 향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오른손으로 칼자루를 쥐고 왼손으로 칼집을 잡아 발검하려는 자세는 傳성덕왕릉의 것과 매우 유사하다.

두 왕릉의 십이지신장 寅상의 자세는 여타 왕릉의 십이지신장상에서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 자세이다. 이러한 점은 傳성덕왕릉과 구정동 방형분에 사용된 십이지신장 寅상 圖案을 그린 화공이 같은 인물이거나 다른 인물일지라도 서로 영향 관계에 있었음을 짐작 가능케 한다. 즉 傳성덕왕릉 십이지신장상의 조성과 구정동 방형분 십이지신장상의 조성까지의 시차가 크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傳성덕왕릉 십이지신장상의 조성은 8세기 중-후엽이다(註5). 그러므로 구정동 방형분의 십이지신장상 조성 또한 8세기 중-후엽에서 그리 멀지 않은 시기였을 것이다.

따라서 통일신라 왕릉 무복 십이지신장상 子상, 午상 도상의 변천과 傳성덕왕릉 寅상의 특징을 통해 보았을 때 구정동 방형분의 십이지신장상 도상은 傳성덕왕릉 및 원성왕릉과 가장 유사하다. 따라서 구정동 방형분의 연대는 두 왕릉이 조영된 8세기 대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상으로 구정동 방형분의 외부적 속성 두 요소의 연대를 재검토해 보았다. 분석 결과 호석 구조와 십이지신장상 도상 양자에서 모두 8세기 후엽 인근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었다. 구정동 방형분은 호석 구조가 8세기 전-중엽부터 798년경까지의 (준)왕릉급 고분과 유사하며, 십이지신장상 또한 8세기 중-후엽에 해당하는 傳성덕왕릉의 것과 798년경에 해당하는 원성왕릉의 것에 매우 닮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 장에서 살펴본 내부적 속성, 이번 장에서 살펴본 외부적 속성 모두를 고려하였을 때 구정동 방형분의 연대는 8세기 후엽 인근일 가능성이 크다.

IV. 통일신라 능원제도에서 구정동 방형분의 의미

구정동 방형분의 연대를 8세기 후엽 인근으로 판단하였을 때 이 고분을 통일신라 능원제도상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선행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구정동 방형분에 대한 해석은 ‘피장자의 비정’ 또는 ‘방형 평면 고분의 조영 배경’에 대한 설명이 시도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 9세기 중엽 또는 그 이후로 보는 입장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필자의 견해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구정동 방형분을 8세기 후엽으로 파악하는 입장에서 선행연구에서 행해졌던 ‘피장자의 비정’ 그리고 ‘방형 평면 고분의 조영 배경’을 새롭게 추론해보고자 한다.

1. 피장자 비정의 문제

구정동 방형분이 8세기 후엽 인근에 조영된 것이라면 이 고분의 피장자는 누구일까.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구정동 방형분의 연대를 8세기 후엽 인근으로 판단하면서 피장자를 비정한 연구는 최민희(1999: 52~62)가 유일하다.¹⁷⁾ 그는 피장자를 報德王 安勝으로 추정하였다. 이 고분에 고구려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보았기 때문인데, 그 근거는 ①방형 평면의 고분인 점, ②매장주체부 벽체를 치석한 석재를 이용한 점, ③우편재연도이면서 현실 높이가 낮은 점, ④판석조의 판대를 설치한 점, ⑤판대가 남-북방향으로 놓인 점, ⑥벽체에 회칠을 가한 점의 여섯 가지이다. 그러나 앞에서

17) 9세기 중엽 또는 그 이후로 파악하는 연구자들은 민예왕릉(물839)(이근직 2012: 406~407), 경문왕릉(물875)(김용성 · 강제현 2012: 199), 경명왕릉(물924)(전덕재 2013: 484~485)으로 비정한다.

살펴보았듯이 ①방형 평면의 고분인 점을 제외한 나머지는 신라 횡혈식석실에서 흔히 관찰되는 속성으로 고구려만의 요소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또한 방형 평면의 고분은 신라에서 훈치는 않으나 분명 존재했으며¹⁸⁾ 고구려뿐만 아니라 隋·唐이나 발해 등 동아시아에서 보편적으로 관찰된다. 따라서 구정동 방형분의 피장자를 꼭 고구려와 관련된 인물에서 찾아야 할 근거는 부족하다.¹⁹⁾

한편 구정동 방형분은 명확한 ‘왕릉’으로 보기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 이근직 (2012: 407)은 호석에 십이지신상을 조각한 사례가 왕족과 신하의 묘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구정동 방형분 역시 피장자가 왕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그러나 소현리 석실분(한울문화재연구원 2015)은 최대 직경이 11.1m으로 같은 시기 왕릉에 크게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호석부에 십이지신상을 조성하였다. 따라서 왕릉에 만 호석에 십이지신상을 배치하였다는 견해는 재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구정동 방형분 봉분(호석) 한 변의 길이는 약 9.0m로 최대 직경이 약 14.7m인 傳성덕왕릉, 22.2m인 원성왕릉에 비해 그 규모가 상당히 작다. 그리고 십이지신장을 조성한 통일신라 왕릉 중 대다수는 호석 바깥에 回廊, 欄干, 상석이 설치되었다. 특히 연대상 구정동 방형분의 전후에 해당하는 傳성덕왕릉과 원성왕릉에도 세요소는 어김없이 설치되었다. 그러나 구정동 방형분에서는 이들이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회랑 및 난간을 연결하였던 수십 매의 석재가 단 한 점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은 해당 요소들이 본래부터 설치되지 않았다고 이해함에 무리가 없을 것이다.²⁰⁾

18) 경주에서 확인된 방형 평면 고분은 병내리고분군 23호분(한빛문화재연구원 2018), 동천동 354번지 13·14·15호 석실묘(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13)의 4기가 있으며, 홍보식 外(2015: 559)에 의하면 쌍총도 방형 평면일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19) 구정동 방형분의 제 요소가 고구려의 영향이라 가정하더라도 고구려 멸망(668) 이전에 출생하였을 안승이 8세 기 후엽 인근으로 판단되는 이 고분에 묻히기 위해서는 100세 이상으로 장수해야 한다. 그러나 고대사회에서 그 정도의 연령까지 삶을 영위하는 것은 매우 드문 편이다. 그리고 고구려가 멸망한 지 100여 년이 지난 상황에서 신라가 오직 안승만을 위해 맹국 고구려의 봉분 형태를 쓰도록 허가해주었을지도 의문이다.

또한 안승의 행적은 신문왕 3년(681) 제3관등인 蘇判에 제수되어 왕경에 들어와 살게 된 이후의 행적은 확인되지 않는다.『三國史記』新羅本紀, 三年…徵報德王安勝爲蘇判賜姓金氏留京都賜甲第良田。이는 적어도 신라 중앙정계 내에서 활발한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 한편 신라에 있어 입지적인 인물임과 동시에 제1관등 太大角干 金庾信이 835년 興武大王으로 추존된 이후에야 무덤이 왕릉급으로 개수되었다는 점(裴魯燦 2020: 991~992)을 참고하였을 때, 안승의 정치적 입지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음에도 무덤을 왕릉급으로 조영하는 것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20) 김용성·강재현(2012: 192~193)은 이러한 봉분의 규모가 비교적 작고 능원시설이 탈락된 점을 9세기 중엽 이후 쇠퇴기 왕릉의 특징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그것을 꼭 시간성이 반영된 결과로만 보아야 하는지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다. 봉분의 규모가 축소되었고 능원시설이 소멸한 왕릉이 늦은 시기의 것이라는 것이라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비교적 이른 시기의 것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상황에서 조영된 왕릉이거나 왕릉보다 약간 격이

또 앞의 호석 구조 분석에서 보았듯이 치석사괴석 호석은 왕릉의 경우 702년경의 傳신문왕릉(효소왕릉)에만 적용되었고 737년경의 (傳)성덕왕릉부터는 판석면석 A형으로 변화, 기존의 치석사괴석 호석은 준왕릉급 고분에만 적용되었다. 그런데 구정동 방형분의 경우 치석사괴석과 판석면석 B형이 혼합된 호석 구조이다. 구정동 방형분이 왕릉이라면, 8세기 중엽의 성덕왕릉에 이미 판석면석의 새로운 호석 구조가 도입되었는데 동시기 준왕릉급의 호석 구조를 적용한 것이 되어 어색하다.

이러한 여타 통일신라 왕릉에 비해 봉분의 규모가 작고 능원시설이 탈락되었다는 점, 동시기 준왕릉급 고분의 호석 구조가 적용된 점은 구정동 방형분을 왕릉으로 보기 어렵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구정동 방형분을 왕릉으로 보아야 할 여지도 분명 있다. 隅柱石에 부조된 石人像(胡人像)과 石獅子像 때문이다. [사진 2] 석인상과 석사자상은 통일신라 왕릉 중 극히 일부에만 배치되었던 것 같다. 傳성덕왕릉, 원성왕릉, 흥덕왕릉, 傳현덕왕릉의 4기에서만 확인되기 때문이다. 이는 준왕릉급 이하의 고분은 물론 왕릉이라 할지라도 陵園石刻을 설치하기 어려웠음을 의미한다. 또 唐에서의 석사자상은 황제릉 또는 號墓爲陵(능으로 격상된 황족의 무덤)에만 배치되었다(朴敬源 1982: 171). 그러므로 이들의 배치는 구정동 방형분을 왕릉으로 볼 근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구정동 방형분은 봉분 규모, 능원시설, 호석 구조, 능원석각을 살펴보았을 때 ‘왕릉급 고분’임은 분명해 보이지만 ‘왕릉’으로 단정 짓기는 애매하다.²¹⁾ 이러한 구정동 방형분의 위계적 특징을 보았을 때 그 피장자는 왕으로만 한정지어야 할 것이 아니라 보다 넓은 범위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왕은 아니나 그에 상당하는 영향력이 있었던 인물 또한 피장자 후보에 들 수 있다는 것이다.



[사진 2] 구정동 방형분의 석인상, 석사자상 (임영애 2020)

떨어지는 고분이라면 그러한 현상이 확인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1) 都出比呂志(쓰데 히로시 2011: 20~23)에 의하면 고고학에서의 왕릉이란 문자 그대로 ‘왕의 칭호를 가진 사람을 위한 기념물’이기도 하지만 ‘왕이라는 칭호를 가졌는지 아닌지에 관계없이 한 사회에서 커다란 힘을 가진 영웅이나 권력자를 위한 기념물’로도 정의할 수 있다고 한다. 본고에서는 전자를 ‘왕릉’으로, 후자를 ‘왕릉급 고분’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두 피장자 후보군 중 왕부터 살펴보자. 8세기 후엽 인근의 신라왕은 경덕왕(몰765), 혜공왕(몰780), 선덕왕(몰785)이 있다. 이 중 혜공왕은 金志貞의 亂 중에 왕비와 함께 시해되었고 이후 내물왕계의 선덕왕으로 왕통이 바뀌었기 때문에 능을 조영하였을지 의문이다.²²⁾ 또 왕비와 함께 사망하였다면 합장을 하였을 것인데 구정동 방형분의 관대는 하나에 불과하므로 혜공왕릉일 가능성은 떨어진다. 선덕왕 또한 화장 후 동해에 散骨하라는 遺詔를 남겼기 때문에 능을 조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²³⁾

한편 경덕왕의 장례는 ‘頃只(毛祇)寺 西岑에 初葬한 뒤, 楊長谷에 치석한 석재를 사용하여 능을 조성(鍊石爲陵)한 다음 移葬하는’ 절차로 진행되었다.²⁴⁾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楊長谷’과 ‘鍊石爲陵’이다. 해당 紀事를 수용한다면 현재의 경덕왕릉은 移葬地인 양장곡에 위치하여야 한다. 그런데 양장곡은 또 성덕왕릉이 위치한 장소이기도 하다.²⁵⁾ 즉 경덕왕릉은 성덕왕릉 인근에 위치한 셈이 된다. 마침 구정동 방형분은 傳성덕왕릉에서 동남쪽 1.7km로 상당히 가까운 편이기 때문에 傳성덕왕릉이 실제 성덕왕릉이라면 구정동 방형분은 양장곡 또는 그 인근에 위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구정동 방형분의 피장자를 경덕왕으로 비정한다면 해당 장지기사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또 鍊石爲陵은 신라왕 장지기사 중 오직 경덕왕에서만 확인되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왜냐하면 단어 그대로 ‘치석한 석재를 사용’한 사례는 외표시설인 호석의 경우 702년의 傳신문왕릉(효소왕릉)부터, 내부시설인 매장주체부의 경우 늦어도 8세기 중엽부터이기 때문에 경덕왕릉에 이를 굳이 기록할 필요가 없음에도 特記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연석위릉은 무엇을 내포하고 있는 것일까. 필자는 ‘치석한 석재를 사용하여 다른 고분과는 대비되는 특수한 형태로 왕릉을 조영하였음’ 정도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경덕왕릉을 구정동 방형분으로 가정하였을 때, 이 고분은 내·외부에 모두 치석한 석재를 사용하였음을 물론 현재까지 확인된 통일신라 왕릉급 고분 중 유일하게 방형 평면으로 특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석위릉 구절 또한 경덕왕릉을 구정동 방형분으로 가정한다면 그 뜻이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다.

22) 『三國史記』新羅本紀. 伊食志貞叛聚衆圍犯宮闈…王與后妃爲亂兵所害。

23) 『三國史記』新羅本紀. 死後依佛制燒火散骨東海。

24) 『三國遺事』王曆. 初葬頃只寺西岑鍊石爲陵後移葬楊長谷中。; 『三國史記』新羅本紀. 葬毛祇寺西岑。

25) 『三國遺事』王曆. 陵在東村南一云楊長谷。

하지만 구정동 방형분은 상술한 여러 위계적 특징을 보았을 때 왕릉이 맞는가 의문이 든다. 경덕왕은 전제왕권을 표방했던 인물이며 후사는 아들인 혜공왕이 계승하였기 때문에 왕릉의 조영은 무리가 아니었을 것이다. 따라서 구정동 방형분을 경덕왕릉으로 비정하기 위해서는 봉분 규모, 능원시설, 호석 구조 등을 왜 傳성덕왕릉 및 원성왕릉에 미치지 못하게 조영하였느냐에 대한 설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구정동 방형분은 경덕왕 장지기사만을 통해서 보았을 때 ‘경덕왕릉’일 가능성성이 있어 보이지만 물질자료에서 확인되는 위계적 특징은 이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단정짓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음으로 8세기 후엽 신라에서 왕은 아니나 그에 상당하는 영향력이 있었던 인물들을 살펴보자. 이들은 왕과 혈연적으로 가까운 주요 왕족일 가능성이 크다. 이 중에서 특히 태자는 왕위계승 1순위로써 왕 다음가는 주요 왕족이며 정치적 입지 또한 상당하였을 것이다. 또한 唐에서는 황태자가 요절하였을 때 황제릉 또는 그에 준하는 격으로 무덤을 조성한 사례가 확인되는데 675년 高宗의 황태자 李弘이 사망하자 무덤을 恭陵이라 칭하며 황제릉의 격으로 조영된 것, 811년 憲宗의 황태자 李寧이 사망하자 무덤을 惠昭陵이라 칭하며 역시 황제릉의 격으로 조영된 것이 대표적이다 (유향양 · 추교순 2012: 377~385; 陕西省考古研究所 · 临潼县文物园林局 1992: 1). 이러한 唐의 太子陵 조영은 신라가 선례로써 참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8세기 후엽인 원성왕대(785-798) 두 명의 태자가 연이어 사망한 사례가 확인되어 주목할만하다. 원성왕 원년(785) 仁謙을 태자로 책봉하였으나 7년(791) 사망, 謚號를 惠忠이라 하였고 이듬해(792) 義英을 태자로 재차 책봉하였지만 10년(794)에 또 다시 사망, 시호를 憲平이라 하였다.²⁶⁾ 이 중 혜충태자의 경우 그의 아들이 소성왕으로 즉위하여 원성왕의 후사를 이었고, 소성왕 원년(799) 惠忠大王으로 추존²⁷⁾되었기 때문에 그의 정치적 입지가 상당하였을 것임은 당연하다. 또 신라에서 시호를 추증한 사례는 왕 또는 追尊王에서만 확인되기 때문에 이들이 별도의 시호를 추증받았다는 사실은 그들의 장례가 왕의 그것만큼 성대하게 치러졌음을 짐작케 하기도 한다.

한편 구정동 방형분을 ‘원성왕대 태자릉’으로 가정한다면 상술했던 물질자료의

26) 『三國史記』新羅本紀, 元年…立子仁謙為王太子。; 七年…王太子卒謚曰惠忠。; 八年…封王子義英為太子。; 十年…太子義英卒, 謚曰憲平。

27) 『三國史記』新羅本紀, 追封考惠忠太子為惠忠大王。

측면에서 명확한 왕릉으로 간주하기 애매하였던 부분이 자연스럽게 설명된다. 즉 태자의 무덤을 크게는 ‘왕릉급’의 범주이지만 미세하게는 ‘왕릉’보다 약간 격이 떨어지게 조영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혜충태자와 현평태자의 장례 및 葬地에 관한 내용은 전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 어떠한 격으로 무덤을 조성하였는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구정동 방형분은 唐의 태자릉 조영 선례, 시호의 추증, 물질자료 측면에서의 왕릉으로 판단하기 애매함으로 보았을 때 ‘원성왕대 태자릉’일 가능성성이 있으나 관련 기록이 불충분하기에 이 역시 단정짓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상을 통해 보았듯이 구정동 방형분의 피장자는 ‘경덕왕’ 또는 ‘원성왕대 사망한 태자’ 정도로 후보를 추릴 수 있었지만, 각각 문제점이 존재하여 확실치는 않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관련 문헌 및 唐 능원제도와의 비교 등 더욱 다양한 분석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두 피장자 후보군 모두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이 고분의 의미를 계속 살펴보고자 한다.

2. 방형 평면 고분의 조영 배경

구정동 방형분은 그 이름에서 직관적으로 드러나듯이 봉분 및 호석이 방형의 평면으로 조영되었다. 방형 평면의 고분은 신라 고분 전체에서 전무했던 것은 아니지만(註18) 흔한 평면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연유로 선행연구에서는 ‘방형 평면의 계통’을 시·공간적으로 신라의 바깥에서 구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했다. 상술했던 고구려 계통으로 보는 최민희(1999: 52~62)의 견해가 있으며 또 고려시대에 유행했던 방형 호석 고분과 관련짓는 견해(秦弘燮 1974: 109~114; 김용성·강재현 2012: 184)도 있다. 특히 후자의 견해는 구정동 방형분이 통일신라 왕릉 중 가장 늦은 시기의 것이라는 견해에 대한 주요 근거로 제시되기도 해왔다.

그러나 앞에서 다루었듯이 고구려 계통설의 경우 방형 평면의 고분은 동아시아에서 보편적으로 관찰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며 고려 방형 호석 고분과의 관련성 또한 인정되기 어렵다. 고려 방형 호석 고분 중 대표적 사례인 진주 평거동 고분군과 밀양 고법리 벽화묘 등은 갑석, 지대석, 장대석 면석, 우석으로 구성된 호석 구조로써 그 형태가 구정동 방형분과 실로 유사해 보인다. 그러나 이들의 연대는 피장자가 비교적 명확한 사례들을 살펴보았을 때 대부분 麗末鮮初인 14~15세기이다(申千

湜 2002: 101~103; 주영민 2013: 138). 즉 8세기 후반인 구정동 방형분과 약 500년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이며 9세기 중엽 또는 그 이후라 할지라도 시간차가 상당하기 때문에 관련성을 상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시간차를 매울 수 있는, 특히 10세기경으로 편년되는 자료들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직접적인 관련성을 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즉 구정동 방형분과 고려 방형 호석 고분은 형태만 유사할 뿐 다른 계통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구정동 방형분은 왜 방형 평면으로 조영한 것일까. 필자는 그 배경을 ‘불교’와의 관계 속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왜냐하면 통일신라의 불교는 사회 전반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였음은 물론 매장관념의 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홍보식 2007: 97~102; 이혜정 2013: 112).

선행연구에 따르면 통일신라 왕릉에 미친 불교의 영향은 두 가지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모두 傳성덕왕릉부터 확인되는 것인데 첫째는 기존의 담장 형태였던 호석이 지대석, 면석, 탱석, 갑석 구성의 架構式 구조로 변화한 것이며 둘째는 호석의 외연에 십이지신장상을, 봉분의 네 모서리에 석사자상을 배치한 것이다. 두 요소는 왕릉에 불탑의 요소를 차용한 결과로 이해되고 있다. 호석의 가구식 구조는 불탑 기단을 그대로 베꼈다 해도 무방할 정도로 닮아있으며 신장상과 석사자상 또한 불탑 장엄에 흔하게 등장하는 题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왕릉의 불탑 모방’은 ‘왕의 시신을 모신 능’을 ‘부처의 眞身舍利를 모신 탑’과 같은 형태로 꾸며 ‘王即佛 사상을 구현’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불탑 모방의 시초가 (傳)성덕왕릉인 점을 미루어 경덕왕 자신이 전륜성왕을 자처하기 위해서는 父王인 성덕왕을 우선 전륜성왕으로 추존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이에 따라 성덕왕의 능을 전륜성왕의 격에 맞추어 새롭게 꾸민 것이라 해석하기도 한다(姜友邦 1990a: 322~323 · 350~353; 이근직 2012: 479~482; 金龍星 2013: 23~24; 임영애 2016: 123).

한편 구정동 방형분은 앞 시기의 왕릉인 傳성덕왕릉보다 더욱 불탑을 충실히 모방하고자 했던 것 같다. 십이지신장상을 ‘부조’한 첫 왕릉급 고분이 되기 때문이다.²⁸⁾ 십이지신장상은 傳성덕왕릉에 최초로 조성되었으나 이는 환조로 조각된 것이

28) 황복사지 건물지 기단부의 평복 십이지신장상(聖林文化財研究院 2019)을 부조 십이지신장상의 첫 사례로 판단하는 견해(姜友邦 1990b: 362; 이근직 2012: 307~311)도 있다. 이는 평복 십이지신장상의 연대가 무복 십이지신장상보다 비교적 이르다는 전제하에 도상을 분석한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능원 형식의 변천까지 함께 살펴본 金龍星(2012: 128~131)과 같이 평복과 무복의 차이가 시간성이 반영된 결과는 아니라 본다.

다. 이러한 점은 불탑의 신장상은 부조상으로 조각된다는 사실과 달라 불탑을 완벽하게 모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웠다. 그러나 구정동 방형분부터는 삼이지신장상이 부조로 조각되었는데 이는 불탑의 신장상 조성방식과 일치하는 것이다. 즉 구정동 방형분의 부조 삼이지신장상은 傳성덕왕릉 보다 한 층 더 불탑과 가깝게 능을 장엄한 의도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통일신라 왕릉이 불탑을 모방하여 조영된 점, 그 중에서도 구정동 방형분은 한 층 더 불탑과 가깝게 능을 장엄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의 연장선상에서 방형 평면의 조영 의도를 추정해 본다면 필자는 이 역시도 ‘불탑의 모방’과 관련 있다고 생각한다. 구정동 방형분을 제외한 통일신라 왕릉은 모두 원형 평면으로 조영되었는데 이는 방형 평면을 기초로 하는 불탑과 다른 점이다. 원형 평면이 삼국시대 이래 신라 고분의 주요 평면이었다는 점을 참고한다면 통일신라 왕릉은 평면형에 한해서는 불탑을 따르지 않고 전통을 고수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구정동 방형분은 이러한 원형 평면의 전통을 어기면서까지 방형 평면으로 봉분을 조영하였다. 이는 즉 불탑의 평면형과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선 통일신라 왕릉, 특히 구정동 방형분이 불탑을 충실히 따르고자 했다는 점의 연장선상에서 방형 평면 역시도 불탑을 충실히 모방하고자 한 결과로 파악함에 무리가 없을 것이다.

한편 구정동 방형분이 ‘불탑을 충실히 모방하였다’는 필자의 주장은 상술한 피장자들의 성격과 부합해야 타당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방형 평면’은 당시 신라인에게 무덤의 인상을 크게 좌우하는 요소로써 중요하게 인지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 고분에 묻힌 피장자는 불교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불탑과 유사한 무덤에 묻힐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두 피장자 후보군 중 경덕왕부터 살펴보자. 그는 수많은 佛事を 일으켰던 왕으로 유명하다. 경덕왕대의 불사는『三國遺事』卷3 興法부터 卷9 孝善까지의 79개 항목 중 20%를 웃돌고 있을 정도로 빈번했다. 그의 불사는 신앙의 영험 사례에 대한 보시, 대형 조형물의 조성, 고승들의 초빙 등으로 분류된다. 이 중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거대한 불교 조형물을 다수 조성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여타 왕의 불사와 다른 특징으로 지적될 수 있다. 皇龍寺 大鐘, 芬皇寺 藥師如來佛, 奉德寺 聖德大王神鍾의 鑄成, 靈妙寺 丈六尊像의 改金, 唐 代宗을 위한 萬佛山의 제작이 있다(郭丞勳 2002:

따라서 황복사지 삼이지신장상은 평복의 사례 중 가장 이른 것으로는 볼 수 있으나 부조 삼이지신장상 전체에서 가장 이른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아직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31~43). 佛國寺와 石窟庵의 창건 역시 경덕왕의 명령하에 金大城이 발원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며(황수영 1974: 78~81) 이들의 건설 기간이 20년 이상이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그 규모가 상당했을 것이기 때문에 위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그렇다면 경덕왕은 왜 거대한 불교 조형물을 조성하였을까. 거대 불교 조형물은 보는 이로 하여금 종교적 위압감과 신성성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한다(郭丞勳 2002: 36). 또 이들의 제작은 막대한 재원이 소비되기 때문에 발원자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과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였을 것이다. 경덕왕은 전제왕권을 표방했던 인물이었다는 점 또한 참고된다. 따라서 경덕왕대 거대 불교 조형물의 조성은 경덕왕에게 불교의 권위를 빌려 자신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이었으며, 또 다수가 조성되었다는 사실은 그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경덕왕이 불교 조형물을 조성함으로써 불교의 권위를 빌려 자신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자 한 것이라면 그의 능 역시도 이와 유사하게 조영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왕릉의 조영 또한 왕권의 실력을 대내외에 과시하고자 한 의도가 있었으며 그 방식은 조영자의 종교관에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都出比呂志 2011: 167~169). 즉 경덕왕릉에는 기존의 통일신라 왕릉 조영에 경덕왕 개인의 ‘불교 조형물 조성’이라는 영향력 과시의 방식이 더해졌을 것이다. 따라서 구정동 방형분을 경덕왕릉으로 본다면 이는 해당 고분이 ‘불탑을 충실히 모방’한 형태로 조영된 배경으로 설명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다음으로 원성왕대 태자인 혜충태자와 현평태자를 살펴보자. 그들의 행적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교와 얼마나 관련 깊었는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한편 필자는 그들의 장례와 관련해서 박유정의 연구(2018: 37~53)를 주목하고 싶다. 그는 발해 貞孝公主墓(몰792)에서 확인된 墓上建塔의 구조를 ‘塔葬’의 범주로 이해하고 발해에서 그러한 묘제가 등장한 목적과 그 의미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782년과 784년 唐 德宗이 요절한 자식들의 장례를 탑장으로 치르고자 시도한 사실과 이를 관련지은 것이다.

박유정은 唐 황실과 불교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德宗이 일찍 세상을 떠난 자식을 추도하는 마음으로 기존의 예법을 무너뜨리면서까지 불교의 장법인 탑장을 행하고자 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박유정은 두 자식이 781년 平盧節度使 李正己의 난, 783년 澄原軍師의 난이라는 전란의 시기에 사망하였다는 공통점에도 주목

하였다. 이러한 德宗의 탑장 시도는 단순히 추도의 목적에 그치지 않고 국가의 안정을 바라는 의도 또한 담겨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또 박유정은 唐 德宗의 탑장 시도 상황과 발해 정효공주 사망 당시의 상황이 많은 유사성을 보인다 판단하기도 했다. 발해 또한 불교가 융성하였음과 동시에 정효공주 또한 부왕인 文王보다 먼저 요절하였고, 정효공주의 몰년인 792년 발해의 정치적 상황 역시 개혁정책에 따른 반발과 후계 구도의 혼란 등으로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즉 정효공주묘의 탑장 역시 요절한 자식에 대한 불교 기반의 추도, 국가 안정의 기원이라는 목적이 반영되었다 본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8세기 후엽 唐과 발해의 최고위층에 대한 탑장 행위가 신라 원성왕대 태자릉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8세기 후엽의 신라 또한 唐, 발해와 같이 국정이 혼란하였던 시기였다. 혜공왕대 일어난 몇 차례의 반란, 혜공왕의 시해와 선덕왕의 즉위, 원성왕의 즉위와 791년, 794년 태자들의 연이은 사망 등이 그 원인이다. 또한 신라는 782년, 784년 모두 견당사를 파견하였음(權惠永 1997: 71~85)은 물론 재당신라인도 상당하였다. 때문에 唐 德宗의 탑장 시도를 목도하고 그 의도 또한 이해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즉 唐의 주요 황족에 대한 탑장 시도 사례를 참고하여 자국 태자의 장례에도 적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한편 통일신라의 왕릉은 唐, 발해와는 다르게 이미 (傳)성덕왕릉부터 불탑을 모방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탑장을 행한다는 것은 결국 (傳)성덕왕릉의 불탑 모방 방식을 어느 정도 계승하면서 그보다 더욱 불탑과 유사하게 능을 조영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을 것이다.²⁹⁾ 따라서 구정동 방형분을 원성왕대 태자릉으로 본다면, 이는 해당 고분이 ‘불탑을 충실히 모방’한 형태로 조영된 배경이라 설명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29) 唐과 발해에서의 탑장은 묘상건탑의 형태가 보편적이다. 그러나 구정동 방형분의 경우 다량의 전돌이나 기와 등 묘상건축의 흔적이 관찰되지 않는다. 이는 (傳)성덕왕릉의 불탑 모방 방식을 계승하면서 평면형의 변화만 제한적으로 시도하였을 뿐, 建塔이라는 조영 방식의 전반적 변화까지는 추구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V. 맷음말

통일신라 왕릉은 발굴조사 사례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호석 구조나 삽이지신장상 도상, 능원 형식 등 외부적 속성을 중심으로 연대를 판단한다. 그러나 구정동 방형분은 발굴조사가 행해졌기 때문에 매장주체부 구조와 출토유물이라는 내부적 속성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고분의 연대에 관해서는 여타 왕릉에 비해 분석 할 수 있는 자료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8세기 후엽 인근과 9세기 중엽 또는 그 이후로 보는 두 가지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또 이를 판단하는 방식은 대부분 여타 통일 신라 왕릉을 분석하는 것과 같이 외부적 속성에 한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점에 착안 하여 필자는 해당 고분의 내부적 속성과 외부적 속성을 함께 살펴 그 연대를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구정동 방형분의 내부적 속성으로는 매장주체부 구조, 안상문 상석, 당식 대장식 구 교구의 세 요소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구정동 방형분의 매장주체부 구조는 8 세기 중엽부터 10세기경까지, 안상문 판대는 8세기 중엽부터 9세기 초까지, 당식 대 장식구 교구는 7세기 중엽부터 9세기 초반까지로 판단된다.

또 선행연구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졌던 구정동 방형분의 외부적 속성도 재검토해 보았다. 분석 결과 호석 구조와 삽이지신장상 도상 양자에서 모두 8세기 후엽 인근 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었다. 따라서 내·외부적 속성 모두를 고려하였을 때 구정동 방형분의 연대는 8세기 후엽 인근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8세기 후엽에 조영되었다는 결과를 기준으로 구정동 방형분의 피장자와 방 형 평면 고분의 조영 배경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피장자의 비정에 앞서 이 고분이 명확한 왕릉으로 볼 수 있는가를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여타 왕릉과 비교하였을 때 왕릉급 고분임은 맞으나 왕릉으로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으며 그 피장자 역시 보다 넓은 범위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문헌기록을 검토해 보았을 때 구정동 방형분은 그 피장자가 왕이라면 경덕왕릉, 왕이 아니라면 원 성왕대 태자릉으로 잠정 판단된다. 한편 방형 평면 고분의 조영 배경으로는 불탑을 충실히 모방하고자 한 결과로 추정하였는데 이는 피장자를 경덕왕 또는 원성왕대 태자 로 보았을 때 그들의 성격 또는 당시의 국제적 상황과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본고에서는 구정동 방형분을 8세기 후엽에 조영된 왕릉급 고분으로 파악하고 통 일신라 능원제도 상에서 이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지를 설명하였다. 그러나 보았

듯이 피장자와 관련하여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또 이 고분을 8세기 후엽으로 본다면 호인상을 배치한 첫 왕릉급 고분이 되는데 그 의미에 대한 파악도 미처 진행하지 못하였다. 향후 이와 관련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이 고분의 성격을 더욱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투고일 2021. 8. 29 | 심사완료일 2021. 9. 23 | 게재확정일 2021. 10. 6

참고문헌

-國文-

- 姜友邦, 1990a, 「新羅 十二支像의 分析과 解釋」, 『圓融과 調和』, 열화당.
- _____. 1990b, 「統一新羅 十二支像의 樣式的 考察」, 『圓融과 調和』, 열화당.
- 姜仁求, 2000, 「新羅王陵의 再檢討(3) -《三國史記》記事를 中心으로-」, 『古墳研究』, 학연문화사.
- 慶州文化財研究所, 1995, 『憲康王陵補修收拾調查報告書』, 學術研究叢書 10.
- 경주시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2013a, 『신라왕릉 Ⅰ. 현황조사보고서 [본문편]』.
- _____, 2013b, 『신라왕릉 Ⅱ. 현황조사보고서 [도면편]』.
- 계림문화재연구원, 2013a, 『경주 동천동 산13-2번지 유적』, 학술조사보고서 9.
- _____, 2013b, 『경주 신당리 산7번지 내 1호 석실분』, 학술조사보고서 14.
- _____, 2017, 『명활성』, 발굴조사보고서 38.
- 郭丞勳, 2002, 『統一新羅時代의 政治變動과 佛教』, 국학자료원.
- 國立慶州文化財研究所, 2003, 『慶州 月山里遺蹟』, 학술연구총서 35.
- 국립문화재연구소, 2008, 『경상북도의 석탑Ⅱ』, 석조건축 연구자료 6.
- _____, 2011, 『경상북도의 석탑Ⅴ』, 석조건축 연구자료 9.
- _____, 2018, 『경상남도의 석탑Ⅲ』, 석조건축 연구자료 16.
- 國立中央博物館, 1998, 『光復以前調查遺蹟遺物未公開圖面』 -慶尚北道-.
- 權惠永, 1997, 『古代韓中外交史 -遣唐使研究-』, 일조각.
- 金龍星, 2012, 「신라 십이지신장상 호석 능묘의 변천」, 『한국고대사탐』 11, 한국고대사탐학회.
- _____. 2013, 「신라 능원의 의의」, 『민족문화논총』 53,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김용성 · 강재현, 2012, 「신리왕릉의 새로운 비정」, 『아외고고학』 15, 한국문화유산협회.
- 김인철, 2003, 『고려무덤 발굴보고』, 백산자료원.
- 김지현, 2015, 「통일신라시대 眼象文 석탑 고찰」, 『문물연구』 27, 동아문화재단.
- 남시진, 2013, 「신라왕릉 봉분의 구조 및 형식」, 『신라왕릉 Ⅲ. 학술연구보고서』, 경주시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都出比呂志 著, 고분문화연구회 譯, 2011, 『왕릉의 고고학』, 진인진.
- 朴敏源, 1982, 『統一新羅時代의 墓儀石物 石人 石獸 研究』, 『고고미술』 154 · 155, 한국미술사학회.
- 朴裕晶, 2018, 「渤海 貞孝公主墓 塚塔 출현의 의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진혜, 2014, 「경주지역 횡혈식석실묘 연구」, 『고고광장』 15, 부산고고학연학회.
- 박형열, 2021, 「고려왕릉의 특징과 변천」, 『고고학』 20-1, 중부고고학회.
- 裴魯燦, 2020, 「傳金庾信墓의 造營年代와 被葬者 推定」, 『유라시아歐亞 고고考古와 문화文化』 -慶北大學校 考古人類學科 40周年 記念論叢-, 간행위원회.
- 聖林文化財研究院, 2016, 『慶州 錫杖洞 新羅墓群』, 학술조사보고 115.
- _____. 2019, 『경주 낭산 일원 내 추정 고분지 정비 유적 3차 문화재 발굴조사 전문가검토회의 자료』.
- _____. 2020, 『慶州 傳皇福寺址 1』, 학술조사보고 142.
- 세종문화재연구원, 2020, 『慶州 錫杖洞 707番地 遺蹟』, 학술조사보고 89.
- 孫龍文, 1966, 「九政里方形墳 復原工事經緯」, 『고고미술』 12, 한국미술사학회.
- 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15, 「경주 황성동 590번지 유적 Ⅱ -원 · 삼국시대 목곽묘 · 옹관묘 · 575번지 분묘-」, 조사연구총서 77.
- 申千湜, 2002, 『晉州 平居洞 高麗 古墳群 研究』, 경인문화사.

- 嶺南文化財研究院, 2010, 『慶州 隆城洞 575番地 古墳群』, 학술조사보고 174.
- 유항양 · 추교순, 2012, 『중국 당대 황제릉 연구』, 서경문화사.
- 윤경렬, 1971, 『신라왕릉 이야기』, 경주박물관학교 교재 9, 어린이 향토학교 뒷받침회.
- 尹相應, 2012, 「日帝强占期 慶州地域 橫穴式 石室墳 調査에 대하여」『일제강점기 고고학조사와 그 성격』, 제 21회 학술발표회 발표자료집, 영남고고학회.
- 이근직, 2012, 『신라왕릉연구』, 학연문화사.
- 이상준, 2012, 「고려왕릉의 구조 및 능주 검토」, 『문화재』 45-2, 국립문화재연구소.
- 이진락, 2013, 「전현강왕릉과 전경강왕릉의 호석 원형에 대한 일고찰」, 『신라문화』 41, 동국대학교 신라문화 연구소.
- _____. 2014 「신라왕릉 전기탐사와 구조해석 -경주지역 통일신라시대를 중심으로-」, 경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혜정, 2013, 「경주지역 횡혈식 석실의 등장과 전개」, 『영남고고학보』 67, 영남고고학회.
- 임영애, 2016, 『Ⅱ 신라왕릉의 석인상』, 『조선왕릉 석물조각사 I』, 국립문화재연구소.
- _____. 2020, 「신라 왕릉 석인상, ‘중앙아시아인’인가?」, 『신라의 대외관계』, 국립경주박물관.
- 張賢熙, 1997, 「統一新羅 陵墓 十二支像의 研究」,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호진 · 강량지, 2020, 「신라 황복사지 동편 폐고분지의 성격」, 『문화재』 53-1, 국립문화재연구소.
- 전덕재, 2013, 「신라 왕경에서 왕릉이 차지하는 위치 및 관계 고찰」, 『신라왕릉 Ⅲ. 학술연구보고서』, 경주시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주영민, 2013, 『고려시대 지방 분묘의 특징과 변화』, 혜안.
- 陳政煥, 2009, 「統一新羅 十二支神將像 考察」, 『三次元計測技術を用いた新羅王陵石像彫刻の総合的較研究』, 奈良県橿原考古学研究所.
- 秦弘燮, 1974, 「高麗時代 古墳의 方形護石 形式」, 『又軒 丁仲煥博士 還暦紀念論文集』, 간행위원회.
- 최민희, 1999, 「慶州 九政洞方形墳의 構造와 被葬者 問題」, 『경주문화』 5, 경주문화원.
- 최병현, 2021, 『신라 6부의 고분 연구』, 사회평론 아카데미.
- 崔正凡, 2018, 「한반도 唐式 帶裝飾具의 전개와 의미」, 『한국고고학보』 106, 한국고고학회.
- _____. 2021, 「新羅王京 周邊 出土 唐式 帶裝飾具의 分布 定型」, 『아외고고학』 40, 한국문화유산협회.
- 최종구 外, 2013, 「새로 발견된 통일신라의 두 능묘급 고분 -경주 소현리와 신당리 고분-」, 『한국고고학저널 2013』, 국립문화재연구소.
- 忠清大學博物館, 1998, 『永同 寧國寺』, 학술연구총서 7.
- 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02, 『慶州 隆城洞 遺蹟 - 537-1 · 10, 537-4 · 535-8, 544-1 · 6番地 發掘調査 報告書 -』, 학술조사보고 132.
- _____. 2013, 「4. 경주 동천동 354번지 유적」, 『2011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VII-경북 2-』, 학술조사보고 256.
- 한빛문화재연구원, 2018, 『경주 조전리 ~율동 유적 I -방내리고분군-』, 학술조사보고 63.
- 한울문화재연구원, 2015, 『경주 소현리 유적 I』, 발굴조사보고 74.
- 홍보식, 2007, 「신라의 화장묘 수용과 전개」, 『한국상고사학보』 58, 한국상고사학회.
- 홍보식 外, 2015, 「통일신라시대」, 『영남의 고고학』, 영남문화재연구원 학술총서 13, 사회평론.
- 황수영, 1974, 『불국사와 석굴암』, 교양국사총서 35, 세종대왕기념사업회.

「慶州 孝昭王陵 도굴」,『朝鮮日報』(1968.11.20).

-中文-

陕西省考古研究所·临潼县文物园林局, 1992,『唐惠昭太子陵发掘报告』, 西安:三秦出版社.

-日文-

有光教一, 1936,「十二支生肖の石彫を繞らしに新羅の墳墓」,『青丘學叢』25, 京城:青丘學會.

Reconsideration on the Period of Square Tomb in Gujeong-dong

Bae, No-Chan(A postgraduate student, BK21 Four Project, Department of Archaeology and Anthropolog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he royal tombs of Unified Silla have rarely been excavated. Building period is determined based on external attributes. However, Square tomb in Gujeong-dong was previously excavated, so information about internal attributes can be obtained. Nevertheless, there is controversy over the building period of this ancient tomb. One is a view that judge by the late of the 8th century and the other is a view that judge by the middle of the 9th century or later. In addition, most methods of judging this were limited to external attributes, such as analyzing the royal tombs of Unified Silla. In this regard, I wanted to examine the internal and external attributes of the tomb to determine its building period.

As an internal attributes of Square tomb in Gujeong-dong, I analyzed internal structures and excavated artifacts. Their production period corresponds to approximately the late 8th century. And I also re-analyzed the external attributes of Square tomb in Gujeong-dong, which were addressed primarily in previous studies. They also have ample potential to judge from the late 8th century. Therefore, considering both internal and external attributes, the building period of Square tomb in Gujeong-dong is late in the 8th century.

Lastly, I interpreted the meaning of Square tomb in Gujeong-dong based on the building period of this tomb. This is an interpretation of the person buried in this tomb and the background of building of square shape. First, it was concluded

that although this tomb can be widely regarded as a royal tomb, it is ambiguous to see it as a complete royal tomb. This is reason of the person buried in this tomb is believed to have been the king of Silla, who had a special story, or a person who was not the king, but had considerable power. Based on this, I examined historical records. As a result, I assume that the person buried in Square tomb in Gujeong-dong is King Gyeongdeok(景德王) or the crown prince of King Wonseong(元聖王).

About background of building of square shape, I presume as a result of trying to faithfully imitate the Buddhist pagoda. Considering these are the people buried in this tomb mentioned above, It is deeply related to their personalities or the international situation at that time.

Key words : Unified Silla, Silla royal tomb, Square tomb in Gujeong-dong(九政洞 方形墳), Royal tomb Gyeongdeok(景德王陵), Royal tomb of crown prince, Squire shape, Imitating Buddhist pagoda

